『제임스 조이스 저널』
제5집(1999) 287 - 301

블룸의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 종 일

I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소설 『율리시즈』(*Ulysses*)의 주제는 무엇인가? 어느 특정한 문학작품에 관한 논의치고 이보다 더 허황한 논의도 드물 것이다. 왜냐하면 『율리시즈』를 특징짓는 백과사전주의는 이 소설의 소재나 기법에 대해서 뿐 아니라 주제에 대해서도 유효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작품 속에 거의 무제한적으로 펼쳐져 있는 소재와 기법을 통해 다루어지는 주제 자체가 무수히 많은 데다가, 이 모든 것들이 한 데 어우러져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한두 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일정한 주제라기보다는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세계의 유사물인 동시에 그렇게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의 가능성인 것이다.

차라리 소박하게, '블룸의 날'(Bloomsday)에 일어난 일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따져보는 것이 보다 유용한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소 좁혀진 화두 역시 실속있는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너무 애매하고 포괄적이다. 『율리시즈』의 극도로 복잡하고 다면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데이빗 헤이먼(David Hayman)의 말처럼, "아예 결론을 짓지 말거나 아니면 체험의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결론짓는 것이 최선"(80)일지 모른다. 그러나 『율리시즈』에 관하여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으로 단일한 결론을 섣불리 내리는 것이 무모함은 두 말할 나위도 없지만, 그렇다고 애초부터 다리 만지는 일을 제쳐두는 것 또한 코끼리를 제대로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태도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나마 이 다리 저 다리 만져보는 것이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웬만큼 가깝게 조립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블룸의 날에 일어난 일을 다양한 맥락에 따라 분석하는 것도 이 소설을 읽는 좋은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율리시즈』에 들어 있는 엄청나게 다양한 요소들을 살피는 맥락을 설정하는 방법은 무수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맥락짓는 방법들은 수평 및 수직의 두 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수평적 축이란 여러 상이한 각도에서 바라본 다각적인 측면에 따라 어느 요소를 맥락짓는 방향상의 축을 가리킨다. 이에 반하여 수직적 축이란 어느 요소를 바라보는 거리를 다양하게 변화시킴에 따라 달라지는 전망의 규모에 맞추어 맥락짓는 범위상의 축을 가리킨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종종 상호보완적으로 얽혀 있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의 목적을 위해 수평적인 방향상의 맥락 틀을 '측면'이라 지칭하고, 수직적인 범위상의 맥락 틀을 '규모'라 지칭하기로 한다. 가령 어떤 한 가지 논의 대상을 고려하는 측면에 이야기, 심리, 상징 및 신화 등이 있다면, 어떤 한 가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간적 전망의 규모에는 순간, 하루, 일생 및 인류역사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두 가지를 구분함이 없이 함께 아우르는 공통된 맥락 틀을 '차원'으로 지칭하기로 할 때, 차원에는 도덕적 차원과 인식론적 차원이 있을 수 있겠다. 이 맥락 틀들에 따라 블룸의 날에 일어난 일을 논의하는 데 있어, 우선 그날 일어난 두 가지 핵심적인 사건, 즉 리어폴드 블룸(Leopold Bloom)과 스티븐 데덜러스(Stephen Dedalus) 사이의 만남 및 몰리 블룸(Molly Bloom)과 블레이지스 보일런(Blazes Boylan) 사이의 만남을 거론한 후, 그 다음 텍스트의 전체 차원에서 본 블룸의 날의 의미라는 문제를 다루기로 하자.

II

블룸과 스티븐의 만남의 의미는 워낙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오던 터여서 리처드 케인(Richard M. Kain)같은 비평가는 그 해석방식들을 개괄하며 각각의 접근기준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까지 한 바 있다. 이러한 해석의 다양성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문제의 애매성을 반영하는 것인데, 아닌게 아니라 "애매성이야말로 삶의 풍부성과 신비성을 가장 잘 반영한다"(Kain

1974, 160)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애매성도 '측면', '규모' 그리고 '차원' 등의 맥락기준에 따른 해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측면'의 견지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이야기(narrative)의 측면에서 볼 때, 블룸과 스티븐의 만남은 다분히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조우이다. 쌍방간에 아무런 사전계획 없이 이루어진 이 우연적인 만남은 괄목할 만한 특별한 관계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아무래도 희박해 보인다. 심리적 측면에서 볼 때, 그 날 이루어진 자신들의 관계성에 대한 두 남자주인공의 마음가짐사이에는 좁지 않은 간극이 있다. 청년 쪽의 미지근하고 무관심한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중년 쪽의 태도는 잃어버린 아들 루디(Rudy)에 대한 보상심리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입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것을 지속적인 것으로 발전시키려고—부질없는 노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애쓰는 편이다. 상징적 측면에서 본 그들의 만남은 다양한 종류의 대극적 가치들—가령 예술과 과학, 이상과 현실, 순수와 경험, 아버지 없는 아들과 아들 없는 아버지—끼리의 부딪힘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 부딪힘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지도, 치열한 갈등을 빚어내지도 않는 두 대조적 요소사이의 복잡한 뒤얽힘이다. 신화적 측면에서 그들의 만남은 인류역사가 이어지는 과정상의 한 필연적인 단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그것은 구세대의 지혜가 신세대에게 넘겨지면서 세대간의 자리바꿈이 이루어지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성인의식인 셈이다.

'규모'의 견지에서도 비슷하게 다양한 양상이 드러난다. 블룸과 스티븐이 동행하는 각 순간의 규모에서 볼 때, 그들의 만남은 과정은 산만하고 의미는 종잡을 길 없는, 거의 타인에 가까운 두 사람사이에 느슨하게 이어지는 일련의 참신한 대화와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루라는 규모에서 볼 때의 그 만남은 아마 두 사람에게 공히 그 날의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이다. 그것은 개성, 사회적 위치, 혈통 및 가정상황이 서로 다른 두 사람사이의 비상한 조우이자, 서로가 얼마간의 참신한 인상과 충격을 받게 되는 마주침이다, 일생의 규모로 본 그 만남은 각자 다소간의 삶의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비중이 성숙한 중년남자에게보다는 미숙한 청년에게 더 클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인류역사의 규모에서 그 만남은 자연법칙의 궤도를 타고 흘러가는 무한히 많은, 덧없이 미미한 물거품중의 하나에 불과할 것이다.

블룸과 스티븐의 만남이라는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차원'의 종류를 열거

하자면 아마 한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령 두 가지 차원, 즉 도덕적 차원과 인식론적 차원에서 그 만남의 의미를 간략히 풀이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도덕적 차원에서 볼 때 두 인물 모두에게 그 날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인생을 보고, 체험하고, 배우는 일이다. "더블린. 나는 배울 게 많고도 많다"(7. 915)고 생각하는 스티븐에게나, 아내인 몰리로부터 "가서 인생을 좀 봐요. 넓은 세상을 보란 말예요"(15. 331)라는 충고를 듣는 블룸에게나, '블룸의 세계(Bloomsworld)'는 공히 "인생 대학(university of life)"이다. 특히 후반의 사창가(15장), 역마차 대기실(16장) 및 블룸의 집(17장)에서 두 인물이 경험하는 것은 "젊은이가 경험 많은 사람에게 이끌려 악명 높은 곳을 방문하다"(7. 508-09)라는 경구적 표현으로 절묘하게 요약될 수 있다. 사회적, 보편적 맥락에서는 "자연은 우리하고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14. 228)는 것을 꿰뚫어보고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예상하는 것이 현명할지 모른다. 그러나 개인적, 인간적 맥락에서는 우리를 가르치기를 기다리며 "세상이 우리 앞에 있음"(7. 435)을 알아차리는 것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맥락을 다 아우르는 시차(視差, parallax)적인 의미에서, "한 생명이 전부"라는 양날의 경구는 더없이 적절한 표현이다.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 두 인물간의 만남은 동일성과 상이성 사이의 관계라는 역설적인 성격을 띤다. 그것은 경험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차지하는 위치사이의 모순뿐만 아니라 일시적이고 불완전할망정 두 존재의 소중한 합일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맥락의 변화에 따라 질서와 무질서가 교체되는 역설적인 양상과 맥을 같이한다. 개체의 차원에서 볼 때 각 경험이 즉각적으로 주는 새로움과 혼돈의 낯설은 느낌이 보편이라는 질서의 차원에서는 오랫동안 자리잡아 온 낯익은 유형(類型 pattern)으로 수렴된다. 이 두 차원은 한편에서는 새로운 활력을, 다른 한편에서는 안정적인 기반을 각각 제공하면서 상호보완작용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모순적인 동시에 보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질서와 무질서 사이의 역동적 관계이다.

몰리의 정사를 그것이 블룸에 대한 그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도 비슷한 양상이 드러난다. 몰리의 정사 역시 종잡기 어려운 문제로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의가 가능하다. 이야기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은 그들의 결혼생활의 육체적 차원에 관한 한 부부 중 어느 쪽도 충분히 준비

하지 못한 전례없이 비상한 사건이다. 그것은 그들의 결혼관계를 어쩌면 회복 불능의 정도로까지 금가게 할지 모르는 윤리적 범죄이다. 심리적 측면에서 본 그 사건은 부부의 짐짓 태연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산란한 심적 상태에 처하는 시련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양심상의 고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가 이 문제를 모르는 척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시차적으로 의식하면서, 각자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 내리기 어려운 입장에 놓일 것이다. 상징적 측면에서 그 사건은 부부가 각자 저질러 온 일련의 정신적 간통의 절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 사건은 부부가 앞으로 껴안고 씨름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밖에 없는,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빠져들지 않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함정을 상징한다. 신화적 측면에서 그 사건은 일탈행위이면서도 인간본능이라는 자연법칙의 궤도를 따라온 인류역사상의 그 어떤 사건 못지 않게 흔하고 전형적인 부정(不貞)과 배신이라는 원형적 행위에 귀속된다. 이렇게 큰 전망에서 볼 때 그 불륜행위는 인생을 살다 보면 겪을 수 있는, 따라서 포용하는 자세로 받아들일 각오가 필요한 흔한 고난중의 하나로까지 치부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논쟁의 여지가 많은 몰리의 정사가 갖는 가분성(可分性 divisibility)에 올바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규모의 견지에서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발발한 순간의 규모에서 보면 그 정사는 그 충격적인 일탈성으로 말미암아—특히 블룸에게는—그의 시계가 멈춘 상징적 사건이 암시하듯이 마치 세상의 끝처럼 혼란스러운 재앙이 되어 그에게 극도의 심적 혼란을 안겨준다. 그 사건의 종말론적인 이미지("깨진 유리와 무너지는 석조건물"(2. 9, 15. 4245))는 스티븐이 "사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내도 없는"(3. 253) 케빈 이건(Kevin Egan)의 유사한 경우에 대하여 명상하는 대목에서 명료히 나타난다. 하루의 규모에서 보면, 그 사건은 블룸과 몰리 양자에게 화해와 결별 또는 포용과 원망 사이에 빚어지는 엄청난 정서적 갈등과 판단상의 진동—소설의 결말부분에서 적어도 그날만큼은 전자의 충동이 후자보다 다소 우위를 점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을 초래한다. 일생의 규모에서 볼 때, 이 문제가 이들 부부를 계속 괴롭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극복에 의해서건 망각에 의해서건 심지어 이혼에 의해서건 그 사건의 후유증--얼마큼 남아 있든 간에—이 가라앉게 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가장 큰 규모에서 보면, 이 사건은 방대한 인류역사에서

끊임없이 재발하는 성적관계의 전형적인 한 원형에 속하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되어 시야에서 차차 사라져가게 될 것이다.

몰리의 정사라는 문제는 도덕적 차원에서건 인식론적 차원에서건 우리가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띤다. 도덕적 차원에서 그 사건은 그녀의 결혼생활의 질서를 위협하는 성적 유혹에의 부당한 굴복으로 볼 수 있지만, 달리 보면 블룸이 오랫동안 아내의 기본적인 성본능을 소홀히 한 필연적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자연적 충동을 따른 자연법칙" (natured nature), 즉 정(靜)적인(static) 요소와 동(動)적인(kinetic) 요소의 궁극적 결합을 이룬다. 인식론적 차원에서도 그것은 질서와 무질서의 역동적 결합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부정(adultery)이란 한편으로는 인간관계상의 불순(adulteration)이라는 무질서 요소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 궁극적으로는 무차별하게 제공되는 몰리의 사랑을 통해 대표적으로 구체화된 모든 인류의 포용이라는 질서 원칙에 수렴되기 때문이다.

III

지금까지 블룸의 날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살펴 보았다. 그러나 위에 살펴 본 맥락들 외에도 『율리시즈』의 맥락을 설정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무수할 것이다. 이 소설의 의미에 대한 논의를 어떤 부분적인 단계나 일부 사건에 국한시키는 대신에 전체적인 범주로 넓힐 필요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작품 전체에 일어나는 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존 헨리 롤리(John Henry Raleigh)의 지적대로, 이 책의 의미는 책의 결말에서가 아니라 "전체"에서 찾아져야 하는 것으로서 광범위하고 무수하며 한 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데, 이 전체로서의 의미를 구성하는 중심인물들은 거대한 역사적 반향을 표현하는 세부묘사들을 통해 헤겔(Hegel)이 이른바 '구체적 보편'을 구체화한다.[1] 바로 이 '구체적 보편'이야말로 전체 소설의 의미가 갖는 종잡기 어

1) 이 내용에 관한 헨리의 진술을 다소 길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 의미는 '위엄있는, 살찐'으로부터 '그래'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분량의 전체 언어연속체 속에 존재하는 가운데 광범위하고; 문자 그대로이고, 도덕적이고, 우의적이고, 신비적인 방식 등으로 무수하며; 결국은 어떤 종류의 단일하거나 단순한 가설로 공식화할 수 없다.

려운 성격을 요약하는 데 효과적인 개념으로 보인다. '구체적 보편'의 견지에서 『율리시즈』의 의미를 살펴보는 데 유용한 한 가지 접근법은 바로 논제의 중요한 한 가지 요소, 즉 블룸의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따져보는 일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대조적인 입장이 있다. 그날 일어난 일이 의미있는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그 하나요, 거론할 가치가 있는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견해가 다른 하나다. 첫 번째 입장의 가장 유명한 예는 아마도 블룸은 방황하는 가운데 겪은 모든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데 힘입어 집에 돌아와 "가장으로서의 자신을 내세울지"모르고, 스티븐과의 만남의 결과 블룸 부부는 "정상적인 결혼관계를 계속할지" 모르며, 스티븐은 "떠나가 율리시즈를 쓸지" 모른다(Wilson 192-93, 202)는 진단일 것이다. 이보다는 다소 겸허하지만 유사한 견해로는 사창가에서 마술적 정화(淨化)를 치른 후에 블룸이 스티븐을 데리고 집에 간 것은 "귀환이라기보다는 새 출발"인데, 그것은 그들의 삶이 영원히 변화되어 블룸에게는 찬탈자 정복의 능력 획득을, 스티븐에게는 작가로서의 성숙을 약속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Burgess 165, 171). 또한 두 남자가 각자의 곤란한 처지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그 문제는 어쨌든 "누그러지고 처리 가능한" 상태로 바뀌었다는 더욱 신중한 견해도 있다(Peake 335). 두 번째 입장도 다양하다. 두 남자 주인공 사이에 "아무런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몰리에 대한 그[블룸]의 관계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Brooks 433-35)는 견해나, "책의 결말부분까지 크게 일어난 일은 없다. 상황이 두 남자에게 혹시 분명해졌을지는 모르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인생은 아마 1904년 6월 17일에도 매우 비슷하게 진행될 것처럼 보인다"(Hart 1974, 183)는 견해나, 또는 "그 길이와 읽기 힘든 점을 고려할 때 『율리시즈』에서 일어난 일은 비교적 적다"(Schwarz 29)는 견해들

..거대한 미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구성체는...중심인물들 자신이다. 이들은 헤겔(Hegel)이 부른 바 '구체적 보편'의 실례를 서양문학사상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다. 각 주역이 풍부하고도 다양하게 지닌 그토록 수많은 도덕적, 정서적 및 지적 특성에 결부되어있고 심지어 이를 표현하기까지 하는 그토록 풍요로운 생리학적 세부묘사는 다른 어떤 문학작품에도 없다. 그리고 이 주역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커다란 역사적 반향을 표현한다..." (120)

이 그 예다. 양쪽 입장의 어느 견해도 결정적이라거나 아니면 논외의 대상이라고 못박을 수는 없다. 오히려 '구체적 보편'이라는 역설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에 의하면 이들 견해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의미한 사건' 이론은 인류역사와 세계라는 큰 맥락에서의 순환적 귀환이라는 틀(pattern)에 대한 강조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하트의 의견으로는, "변화를 시사하는 일을 피하는 성향"을 지닌 조이스에게 있어서 "자의식의 획득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중요한 것은 세계를 바꾸는 일이라기보다 그것[일상생활이 궁극적으로 순환 틀을 따르는 방식]에 관하여 배우는 일"(Hart 1990, 154, 159)이다. 잭 보원(Zack Bowen)의 관점에서는 "블룸의 날의 중요하지 않은 사건들"은 조이스가 로런스 스턴(Laurence Sterne)처럼 "보편적인 인간체험에 도달하기 위해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을 기록한다는 사실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109). 이와는 대조적으로 '의미있는 사건' 이론은 사건이 새로움과 혼란의 느낌을 빚어내며 일어나는 순간과 현장이라는 보다 작고 직접적인 맥락에 초점을 맞춘다. 가령 피크(C. H. Peake)는 조이스가 "도덕적 문제들의 제시를 단순화하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대로의, 특정화되고 일시적인 삶의 흐름의 느낌" 혹은 "평범한 생활의 곤혹스러운 맥락"(339)을 회생하기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블룸의 날에 짧은 전망에서 보면 많은 일이 일어났고 긴 전망에서 보면 별로 일어난 일이 없다고 보는 이중적인 시각으로 『율리시즈』가 읽히도록 하자는 것이 조이스의 의도라는 점이다.

우선 하루 또는 심지어 일생이라는 규모에서는 블룸의 날이 비교적 상당히 많은 일이 일어난 날이라고 할 수 있다. 블룸이 사창가에서의 "혹독한 시련"을 두고 탄식조로 말하듯이 "그날은 비상하게 피로한 날, 즉 사건들로 얼룩진 장(章)"(15. 2379-80)이다. 실상 그날은 블룸 부부의 10여 년에 걸친 결혼생활 동안 최초로 일어난 불륜행위인 몰리의 정사라든지 블룸이 오랫동안 애통히 여겨온 아들의 상실에 대한 보충심리로 이끌어 간 스티븐과의 만남같은 큰 사건들이 일어난 날이다. 적어도 블룸에 관한 한, 이 사건들은 그날로서는, 그리고 어쩌면 남은 생애 전부에 걸쳐서도, "중요하지 않다"고 치부해버릴 수 없는 '큰 일'들인 것이다.

그날 사건들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예로 '아침식사'를 들 수 있다. 몰리가 믿고 있는 바블룸이 "두어 개의 달걀을 곁들인 아침식사를 침대에서 받겠

다"(18. 1-2)고 요구한 것은 외견상 더없이 작은 '사소한 일'이다. 아마 "아침식사가 어느 누구의 성적인 관계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믿음"(Ellmann 161)일 것이다.[2] 그러나 조이스의 의도는 그것이 여러모로 시사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이야기의 측면에서 그것은 아이로니컬하게도 "아침식사의 준비"(17. 2042-44)가 원인의 일각을 형성하는 피로의 표현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심리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몰리의 잘못을 응징하고 싶은 블룸의 잠재된 욕망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달걀(탄생)이나 '8'(순환적 방랑)[3]과 같은 모티프와 결부된다는 것은 다음날 아침이 순환적 귀환에 의한 새 출발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이런 견지에서 아침식사가 적어도 몰리가 이해하기에는 그날 두 부부사이에 벌어진 대화의 최초이자 최후의 화제를 구성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신화적인 측면에서 아침식사가 "...침대의 밤에 선원 씬바드 로크새 오크새의 알(Sinbad the Sailor roc's auk's egg in the night of the bed...)"의 "네모지고 둥근(sqare round)"(17. 2328-29) 형태와 결부된다는 것은 아내의 부정으로 말미암은 블룸의 곤경에 의해 예시된 인간조건의 딜레마의 상징으로서 '원을 같은 넓이의 네모로 만들기(sqare the round)'의 수수께끼와 같이 난해한 삶의 수수께끼를 제기한다.

새롭고도 혼란스러운 인상을 지닌 그날의 사건들이 우주적 전망에서는 궤도를 도는 천체의 순환적 질서 속으로 사라져 가는 티끌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아닌게 아니라 몰리의 간통에 대한 블룸의 감상은 질투심에 찬 앙심보다는 체념 어린 수긍 쪽으로 기울어지는데, 이를 정당화하듯이 그는 넓혀진 시야에 입각한 상념을 통해 "승리나 항거나 변명의 부질없음: 찬사받는 덕망의 허무함: 불가지(不可知)한 물질의 무기력함: 별들의 무관심"(17. 2224-26)을 깨닫는다. 그러나 균형잡힌 관점에서 볼 때 블룸의 선택은 단순히 '아무 것도 하지 않기'가 아니다. 그는 분명 "위대한 개혁가"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시간의 폐허가 영원의 저택을 짓는다"(14. 289-90)면, '시간의 건설이 영원의 저택을 허문다'는 역설도 성립하는 것이다. 개별과 보편, 일상적인 우연성과

2) 보원도 비슷한 견해를 보인다. (109 참조)

3) 숫자 '8'은 숱한 상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형태로 볼 때는 현재의 문맥상 "두 개의 달걀"뿐만 아니라 순환적 귀환의 움직임을 연상시킨다. 물론 다른 문맥에서는 이 책의 주요 모티프에 속하는 가령 엉덩이, 두 눈으로 보는 시각 등에 연계된다.

신의 섭리 및 낯설음과 낯익음을 결합할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이렇듯 '구체적 보편'에 대한 궁극적으로 시차적인 상상력이다. 이런 의미에서 『율리시즈』는 케인의 말을 빌어 "기억(과거의 목소리)과 욕망(장래의 희망)이 심리적 현재에서 섞이고 뒤얽히는 것을 보여주는, 삶에 포함되어 있는 영속성과 변화의 혼합물"(Kain 1959, 71)이다. 이 점은 플라톤적 이상주의의 대우주적 차원과 아리스토텔레스적 물질주의의 소우주적 차원 사이의 궁극적인 상호관련에 대한 스티븐의 명상을 통해 명확한 비유적 표현을 얻는다:

> 사람 피의 적혈구보다 작은 공간 사이로 그들은 블레이크의 엉덩이를 좇아 이 식물세계가 그 그림자에 불과한 영원 속으로 꾸물꾸물 기어간다. 모든 미래가 과거로 뛰어드는 통로인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매달려라. (9. 86-89)

세계에 대한 조이스의 상상적 전망이 갖는 화해 요소는 로버트 벨(Robert H. Bell)이 지적하듯 "자기(磁氣)적 영향(magnetic influence)"인 바, "자기적 영향은 비록 내일에 대하여 아무 것도 보장하는 것이 없고 실로 영속적으로 되풀이되는 상승과 하강의 보다 큰 순환 틀의 일부이지만 마치 놀라우면서도 지역적이고 순간적이며 한정된 프로스페로(Prospero)의 권능처럼 뚜렷하고 강력한 희극적 힘이다"(94).

"아무런 결말도, 해결도, 결정도 없이 오직 현혹시키는 곤경만을 안고 있고" 논증이 불가능한 이 문제의 성격에 접근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헤이먼이 제시한 "일종의 치환 이론"은 참고할 만하다:

> 각 개체의 세계가 겪게 되어 있는 변화의 수가 엄청나게 많기는 해도 무한한 것은 아니므로, 틀들은 사건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가운데 되풀이된다. 그러나 순간들은 앞선 순간들이나 뒤이은 순간들에 의해 조건지어지는 까닭에 역사는 "차이를 낳으며 반복된다". (80-81)

한 개체의 의미와 전체적 틀의 질서 사이의 관계는 갈등또는 심지어 긴장의 관계일 뿐 아니라 보완의 관계이기도 하다.[4]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에 의하면, 정보체계로서의 복잡한 예술작품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에서 연유하는

---

4) 미술에 있어서 의미와 반복 사이의 모순적 관계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곰브리치(E. H. Gombrich)의 『질서의 의미』(*The Sense of Order*) 149-55 참조.

불확정성이나 모순의 성격은 "모든 현상들의 총합만이 정보의 가능성들을 소진시킬 수 있을 터이기 때문에" 실상 보완성을 유도하는, 따라서 "그 형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특징"이 된다(59).

블룸의 날에 일어난 두 가지 주요 사건의 의미를 특징짓는 것도 바로 이러한 모순적이면서도 보완적인 긴장의 특성이다. 가령 블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 사건이 갖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그 사건들이 그에게 두 가지 종류의 '사생(私生 illegitimacy)'[5]에 관한 귀중한 교육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이다. 그가 싸이먼 데덜러스(Simon Dedalus)의 아들인 스티븐에게 대리 아버지 역할을 시도하려 했다는 점에서나, 또 몰리가 외간남자인 보일런과의 성관계를 통해 시의부적절한(?) 생리만 아니었다면 임신했을지 모른다는 점에서, 블룸은 육체적 의미의 사생아를 둘씩이나 얻을 가능성에 놓여 있었다. 그는 또한 부성(父性 fatherhood)에 대해 회의적인 스티븐과의 교류를 통해 정신적 이단을 경험한 셈이라면, 아내 몰리의 불륜을 통해 도덕적 불법을 경험한 셈이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부성의 찬탈(簒奪) 또는 부정(否定)에 수렴된다.[6] 부성에의 도전에 내포된 의미는 지배적인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제도, 체제, 이념 등의 허구성 또는 불확실성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일정 대상에 대한 단일한 관점의 지양 또는 다양한 관점의 지향에 맥이 닿아있는 것이다.

IV

조이스는 "『율리시즈』를 집필하는 동안 나는 나의 말을 가지고 더블린의 색깔과 색조를 부여하려고 노력했다"(Power 98)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블린" 시에 대한 언급은 세계 일반을 나타내는 반면, "색깔과 색조"는 "어떤 예술작품이든 그 목표는 정서의 전이이다"라는 이어지는 진술에 의해 뒷받침

5) 여기서 '사생'과 '비합법성' 또는 '비정통성'의 의미를 함께 지니는 영어 단어 'illegitimacy'의 개념에 해당하는 우리말 표현이 마땅치 않아 일단 육체적 의미의 '사생'을 사용했지만 이것이 이어지는 논의에 나타나듯이 정신적 의미의 '비합법성'의 함의도 가짐은 두말할 나위 없다.

6) 후랭크 버진(Frank Budgen)은 『율리시즈』에서 "드러난 것은 모든 사회적 신앙에 있는 부성의 요소"라고 썼다. (281)

되듯 지방색, 즉 개인적 정서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조이스가 『율리시즈』에서 제시하고자 했던 것은 개별적 특색과 보편적 양상의 융합, 즉 '구체적 보편'인 셈이다. 소재에 있어서의 이 구체적 보편의 개념은 그의 서술방법에서 그 형식적 등가물을 찾는다. 이 책의 세계에 대한 관점은 작중인물의 의식으로부터 서술자의 묘사와 헤이먼이 지칭한 바 '조정자(the arranger)'(84)의 과감한 처리를 거쳐 작가의 전체적 구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에 걸쳐 있는데, 이는 다시 한 단계 더 떨어져 있는 독자에게까지 이어진다. 이 다양한 차원의 관점들이 작용하는 구조적 양태는 서로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유사하다. 작중인물의 의식이라는 일견 제한된 전망은 미세한, 순간 순간의 인상들을 기록하는 동시에 광대하게 뻗어있는 우주와 인류역사를 포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독자는 책과 작가의 범주너머로 거리를 둘 수 있으면서도 글 읽는 동안 그에게 제시되는 대상 하나 하나에 그의 인지적 초점을 집중시켜야 한다. 주제의 차원과 구조의 차원에서 공히 극대 세계와 극소 세계가 이렇듯 유연하게 상보적으로 작용하는 양태는 블룸의 날에 일어난 일의 의미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구체적 보편'이라는 역설적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의 정당성을 입증한다. 이런 의미에서 『율리시즈』는 형식상으로나 주제상으로나 삶의 다양한 맥락과 차원이 다면적이고 상호의존적인 방식으로 얽혀있는 양상 그대로를 모범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라 하겠다.

(서울대)

인용 문헌

Bell, Robert H. *Jocoserious Joyce*. Ithaca & London: Cornell UP, 1991.

Bowen, Zack. Ulysses *as a Comic Novel*. New York: Syracuse UP, 1989.

Brooks, Cleanth. "Joyce's *Ulysses*: Symbolic Poem, Biology, or Novel?" *Imagined Worlds*. Ed. Maynard Mack & Ian Gregor. London: Methuen & Co. Ltd., 1968, 433-35.

Budgen, Frank. *James Joyce and the Making of* Ulysses. Bloomington &

London: Indiana UP, 1960.

Burgess, Anthony. *Here Comes Everybody*. London: Faber & Faber, 1965.

Eco, Umberto. *The Role of the Reader*. Bloomington: Indiana UP, 1984.

Ellmann, Richard. *Ulysses on the Liffey*. London: Faber & Faber, 1972.

Gombrich, E. H. *The Sense of Order*. Oxford: Oxford UP, 1979.

Hart, Clive. "The Rhythm of *Ulysses*." *James Joyce: The Artist and the Labyrinth*. Ed. Augustine Martin. London: Ryan Publishing Co. Ltd., 1990, 153-68.

_____. "Wandering Rocks." *James Joyce's* Ulysses: *Critical Essays*.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 of California P, 1974, 181-216.

Hayman, Ulysses: *The Mechanics of Meaning*. Wisconsin: U of Wisconsin P, 1982.

Joyce, James. *Ulysses*. 1922. Ed. Hans Walter Gabler. London: The Bodley Head, 1986.

Kain, Richard M. *Fabulous Voyager: James Joyce's* Ulysses. Chicago & Illinois: U of Chicago P, 1959.

_____. "The Significance of Stephen's Meeting Bloom." Ulysses: *Fifty Years*. Ed. Thomas F. Staley. Bloomington & London: Indiana UP, 1974, 147-60.

Peake, C. H.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Stanford: Stanford UP, 1977.

Power, Arthur. *Conversations with James Joyce*. Ed. Clive Hart. London: Millington, 1974.

Raleigh, John Henry. "*Ulysses*: Trinitarian and Catholic." *Joyce's* Ulysses: *The Larger Perspective*. Ed. Robert D. Newman & Weldon Thornton. London & Toronto: Associated UP, 1987, 98-122.

Schwarz, Daniel R. *Reading Joyce's* Ulysses. New York: St. Martin's P, 1987.

Wilson, Edmund. *Axel's Castle*. 1931.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9.

Abstract

What Happened on Bloomsday

Jongil Yi

James Joyce's *Ulysses* is a novel which deals with such a multitude of subjects in such a diversity of manners that it is substantially impossible to give a definitive articulation of its overall theme. Here arises the need to try to vary the way in which the work can be read. One useful way to do this is to frame the work, overall or partial, in a variety of contexts. It seems possible to propose three frames of reference for contextualizing the book: 'facet', which refers to the horizontal, or directional, axis that makes it possible to view an element from different angles; 'scale', which refers to the vertical, or dimensional, axis that helps an element to be viewed from varied ranges of perspective; and 'level' which refers to the common axis combining the two. Again, there can be proposed several kinds for each axis: four facets—narrative, psychological, symbolic, and mythic; four temporal scales—the moment of an event happening, a day, a lifetime, and the history of mankind; and two levels —moral and epistemological.

By means of these contextualizing frames, one might, instead of attempting to pinpoint the theme of the book, consider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what has happened on Bloomsday: firstly, focusing on the two most important event of the day—the meeting between Bloom and Stephen and the affair of Molly and Boylan—and, secondly, discussing on the overall plane of the text the significance and consequence of the day's happening. The present essay tried to illustrate according to varied facets, scales, and levels how the day's happenings, especially the two major ones, can be differently interpreted in different contexts. It also tried to make use, in investigating the consequence of Bloomsday in particular, of the term "concrete universal" referring to the paradoxical manner in which specificity and universality are not only contained together in a given element but also interrelated in a complementary and

interdependent way. To make a rough simplification in terms of concrete universal, much has happened in the smaller context, and little in the larger context. *Ulysses* in this sense is, on the plane of manner as well as matter, an excellent embodiment of Joyce's flexible vision of life that accommodates the multilateral and interrelated contexts and levels.